

식량·에너지 위기/ 물가폭등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 압박해 있는 파국에 맞선 행동강령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RCIT) 격문, 2022년 9월 14일,
www.thecommunists.net

우리는 위기와 파탄, 재난의 시기에 살고 있다. 세계경제 공황과 물가폭등/생활비 급증, 궁핍화, 파괴적인 전쟁, 기후 파국 등, 자본주의 체제가 썩어 문드러져 가는 사멸의 진통 속에서 대중의 고통과 재앙을 쏟아내고 있는데 지배자들은 내놓을 해결책이 없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식량·식품과 에너지 (석유·가스·전력) 가격의 급등을 맞으면서 우리 소득의 많은 부분이 빼앗겼다. 많은 나라들에서 정전·단전의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 북반구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올 겨울에 추워서 얼어붙는 것을 의미하며, 남반구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건달 수 없는 열파를 의미한다.

동시에, 에너지 회사 등 독점기업들은 엄청난 초과이윤을 거두고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일하지 않고도 돈을 긁어모으고 다른 사람들을 일하게 해서 이윤을 내는 한 줌의 기생충 주주들, 자본가들, 부자들이 경제를 틀어쥐고 소유하고 있어서다.

이론상으로는 경제는 사회에 봉사해야 한다. 실제로는 한 줌의 경제 소유주들의 이익을 위해 사회가 봉사한다!

이 모든 역병은 신이 내린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거대한 고통의 츠나미는 오직 인간에 의해서만,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이 사회의 부를 창조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만, 노동자 · 근로인민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운명이 우리를 구하지 않는다. 오직 우리 자신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고 구해야만 한다!

이것은 혼자서, 개별로 할 수 없다. 우리 자신을 조직하고 강한 투쟁체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행동 플랜이 필요하다.

여기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이 우리 운동의 그러한 안을 내놓고자 한다. 우리는 개개의 모든 나라의 사회주의자들이 이 행동강령을 구체적 현지 상황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십분 의식하고 있다. 우리의 이 매니페스토, 이 격문의 목적은 일국 행동강령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한 *방법론적 지침*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식량·에너지 가격상한제 즉각 도입!

기업들이 우리의 희생으로 공간을 불리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식품·에너지 가격상한제* 즉각 도입!

나아가 물가폭등으로 우리 임금이 사실상 삭감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임금의 정기적이고 자동적인 인플레이* 조정이 필요하다. 임금을 생계비 상승에 연계시켜 자동 인상하는 물가-임금 연동제를 도입하라. 물가가 10% 오르면, 적어도 그만큼 임금 보전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 관리 및 기후변화 대책을 가격 인상과 연계시키는 말도 안 되는 자본주의 논리는 *이제 끝나야 한다*. "녹색" 자본주의는 사람들이 건강한 행성에서 살 기본권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도록 강요한다. 게다가 이 "녹색" 자본주의는 물가양등과 "녹색 세금"을 감당할 수 없는 빈곤층에게 자책감을 갖게 만드는 등 벌책을 가하는 동시에 "무지한 환경오염자"로 몰아간다. 이 신 세대 자본가들은 자신의 전임들과 동료들이 저질러놓은 환경 범죄를 고치는 비용을 우리 노동자·피억압자들에게 지불하게 함으로써 초과이윤을 획득하고자 한다. *우리는 일체의 가격 인상 없이 기후 변화를 되돌릴 즉각적인 비상 플랜이 필요하다!*

누가 이것을 관리 통제할 수 있을까? 확실히 사업가들 자신은 아니다. 부패한 국가 관리들도 우리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없다. *노동자 · 근로인민 스스로가* 자신의 조직을 통해 — 지역 위원회에서부터 노동조합과 같은 전국 단위의 조직에 이르기까지 — 관리 통제해야 한다.

에너지 기업 몰수!

에너지는 어느 나라에나 다 필수다. 에너지 없이는 모든 것이 붕괴한다. 반면 발전산업을 비롯하여 온실 가스를 배출하는 에너지 기업들의 생산 방식이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의 최악 요인 중 하나다. 이러한 사회 기간산업부문은 이윤 탐욕의 소수 독점자본가들 손에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민주적 통제 하에 에너지 기업 무상 몰수! 이것만이 자연에 대한 추가 피해 없이 에너지 부문을 사회에 봉사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나아가 우리는 *모든 기간산업 대기업들의 몰수*를 요구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사회의 필요에 따라 재화의 생산과 분배에 관한 플랜을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실업자들이 생활임금을 받으며 생산과정에 통합될 수 있게 할 *공공고용 프로그램* 실시가 가능해질 것이다.

행동위원회 건설!

그러한 요구는 권력자들한테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로서, 청년으로서, 피억압자로서 우리의 모든 집단적인 힘을 가지고 그러한 요구 쟁취를 위해 싸워야 한다. 현재 노동운동은 부르주아 권력과 특권으로 가는 지름길을 찾는 관료주의 노조 지도부들과 출세 개량주의 정치인들이 지배하고 있다.

노동자가 자신의 강력한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이들 관료주의·개량주의 지도자들을 무시하고 제끼고 나아갈 수가 없다. 그 경우 자본의 공세에 대한 저항을 조직하도록 이들 지도자들에게 압력을 가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공장·직장과 지역공동체에서 행동위원회를* 만드는 것, 평조합원 조직, 풀뿌리 조직을 창설하는 것이다. 그러한 현장의 위원회들이 전국적 협력조정 기구를 세우기 위해 대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그러한 위원회들은 관료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고, 관료들이 싸우기를 거부한다면 관료의 통제와는 독립·독자적인 투쟁을 조직할 수 있다.

나아가 그러한 행동위원회는 우익 파시스트 도발자들과 폭력 경찰에 맞서 우리의 대오와 공체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방위대/자위기관*을 만들 수 있다.

총파업과 민중봉기를 위해 준비하라!

우리는 자본과 정부에 대항하여 대중투쟁을 조직해야만 우리의 생계와 고용, 생존권을 지킬 수 있다. 저들이 노동자계급의 집단적인 힘을 느끼게 해야 한다. *파업과 대중시위*를 조직하자! 그러나 위협이 되지 못하고 상징에 머무는 한두 가지 제한된 행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노동자·청년·피억압자가 우리의 요구를 쟁취할 때까지 지속하는 *무기한 총파업*을 위해 조직해야 한다.

자본가 정부 타도를 위해 총파업을 *대중봉기*로 성장 전화시켜야 한다. 물가폭등과 경제위기에 대해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 자본가 정부들이다. 노동자 민중에게 고통 전가 이외에는 말이다. 막대한 군사비 지출과 경제 제재, 그리고 전쟁 자체에 책임이 있는 것이 이들 자본가 정부다. 그들이 권력에 계속 있는 한, 우리의 미래는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총파업과 민중봉기의 목표는 행동위원회, 투쟁대표자회의, 노동자평의회 등 대중의 조직화에 기반한 *노동자·민중 정부* 수립이다. 이것이 자본주의를 철폐하는 *사회주의혁명*의 제1보를 내딛는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정치적이다

자본주의 세계경제 대공황은 지배계급의 정치권력 및 소수 제국주의 강대국들에 의한 세계 지배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정치 강령 (프로그램) 없이는, 부르주아 정치가들과 장군들의 손에서 정치권력을 뺏어내는 것 없이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우리의 행동강령은 경제적 요구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세계정치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초점을 둔 명확한 *정치적 요구*들도 포함돼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국제 노동자·민중운동에게 *제국주의 약탈자들에 대항하는 피억압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할 것을 호소하는 이유다.* 이것이 우리가 러시아군에 맞서 우크라이나, 체첸, 시리아 인민들의 방어를 호소하는 이유다. 앞서 우리가 미국의 점령에 맞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인민들을 방어했던 것처럼 말이다.

노동자·민중 조직들은 제국주의 강대국 (미국, 러시아, EU, 중국, 일본) 그 어느 측도 지지해서는 안 된다. 한 측의 다른 측에 대한 경제 제재를 비롯하여 모든 형태의 제국주의 도발·공격에 반대해야 한다.

우리의 투쟁은 국제적이다.

누구도 볼 수 있듯이, 자본주의 위기는 일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대 세계에서 각국 경제들은 세계시장에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고 서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의 투쟁이 국제적인 것이어야 하는 이유다. 역내 수준에서, 그리고 세계적 수준에서 협력조정 하는 것은 노동자계급 조직들의 의무다. 2003년 2월 15일, 우리는 미 제국주의가 벌인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세계 행동의 날을 가진 바 있다. 그 날, 1,500만에서 2,000만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를 행진했다. 우리는 자본주의 위기의 끔찍한 결과에 맞서 다시 *국제적 동원과 조직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국적으로, 국제적으로 혁명당을 건설하기* 위해 사회주의자들이 국경을 가로질러 협력조정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혁명당들은 자본주의 위기와 제국주의 전쟁을 폐절하기 위한 사회주의혁명 강령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